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陽聲韻의 변화*

朱星一**

〈목 차〉

- I. 서론
 - II. 陽聲韻의 변화
 - 1. 咸攝
 - 2. 深攝
 - 3. 山攝
 - 4. 臻攝
 - 5. 宕攝 및 江攝
 - 6. 梗攝 및 曾攝
 - 7. 通攝
 - III. 결론
-

I. 서론

近代漢語에 대한 어음연구가 韻類의 귀납에서 실제 음가의 고찰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四聲通解》(1517, 이하 《通解》로 약칭)의 학술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通解》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모색되고 있다.

조선 초기 訓民正音의 창제는 反切에 머물러 있던 중국 어음표기 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通解》는 이러한 역학사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通解》에 기록된 正音과 俗音 그리고 今俗音 등 세 부류의 한글 注

* 본 논문은 《中國文學研究》 45집(2011년 11월)에 발표한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陰聲韻의 변화〉의 후속 연구로, 당시 논문에서는 陰聲韻을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陽聲韻에 대한 고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연구 방법과 연구대상 注音의 성질 및 표기방식에 대한 내용은 재삼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음을 《中原音韻》(1324, 이하 《中原》으로 약칭) 및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약 1602, 이하 《圖經》으로 약칭) 등 《通解》 전후 시기의 중국 북방 운서와 비교 분석하여, 당시의 북방 중국어 陽聲韻의 변화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通解》의 22개 韻部(총 80韻) 중 陽聲韻은 총 11개 韻部(平上去 총33韻)로 각 韻의 正音에 표기하고 있는 中聲과 終聲은 다음 표와 같다.¹⁾

	韻	韻母	
		中聲 ²⁾	終聲
1	東董送	ㄊ/ㄊ[u/iu]	- ㅅ[-ŋ]
2	眞軫震	ㅣ [i]	- ㄴ[-n]
3	文吻問	ㄴ/ㄊ/ㄊ[i/u/iu]	- ㄴ[-n]
4	寒旱翰	ㄱ/ㄱ[ə/ua]	- ㄴ[-n]
5	刪産諫	ㅏ/ㅏ/ㅏ[a/ia/ua]	- ㄴ[-n]
6	先銑霰	ㅓ/ㅓ[iə/uiə]	- ㄴ[-n]
7	陽養漾	ㅏ/ㅏ/ㅏ[a/ia/ua]	- ㅅ[-ŋ]
8	庚梗敬	ㅣ/ㅣ/ㅣ[i/ii/ui/iui]	- ㅅ[-ŋ]
9	侵寢沁	ㄴ/ㅣ [i/i]	- ㅁ[-m]
10	覃感勘	ㅏ/ㅏ[a/ia]	- ㅁ[-m]
11	鹽琰艷	ㅓ [iə]	- ㅁ[-m]

《通解》의 전체적인 分韻 체계를 볼 때,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洪武正韻》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通解》·『凡例』 제25조에서 밝히고 있듯이,³⁾ 《洪武正韻》의 眞·軫·震·質韻을 《通解》에서는 中聲의 성질에

- 1) 표 안의 한글 音素에 대한 국제음성부호는 姜信沆(1980) 152~155쪽을 참조하였으며, 《通解》에서는 陽聲韻 아래 “屋·質·物·曷·轄·屑·藥·陌·緝·合·葉” 등 11개의 入聲韻이 각각 대응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入聲韻은 논외로 한다.
- 2) 표 안의 中聲 표시에서 괄호 안에 표기한 국제음성부호는 중국어 注音에 사용한 한글음소의 발음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기는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실제 음가와 음계의 상이함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 眞韻中聲 ㄴ-ㄊㄊ, 而其呼成字不類一韻, 古韻亦有眞文之分, 故今亦分之, 以 ㄴ 爲眞韻, 以 ㄴ-ㄊㄊ 爲文韻. (眞韻의 中聲은 ㄴ·ㄴ·ㄴ-ㄊ·ㄊ인데, 실제 발음에 따르면 한 韻으로 분류할 수 없다. 古韻에서도 역시 眞韻과 文韻을 나누고 있으므로, 지금 역시 이를 나누어, 中聲 ㄴ를 眞韻으로 삼고 中聲 ㄴ·ㄴ·ㄴ를 文韻으로 삼는다.)

따라서 眞軫震質(中聲 1)와 文吻問物(中聲 一·ㄷ·ㅍ) 두 개의 韻部로 분류하고 있을 뿐 내부 음계의 성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각 韻部의 正音 아래 기록하고 있는 俗音 및 今俗音에서는 적지 않은 음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제 《通解》에 수록된 正音, 俗音 그리고 今俗音을 중심으로 《通解》 시기 陰聲韻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陽聲韻의 변화

1. 咸攝

廣韻	通解			中原 ⁴⁾	圖經 ⁵⁾	例 ⁶⁾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am	an	an	am	an	全部
開二	am	an	-	am	an	知組 및 莊組
	iam	ian	iən	iam	ien	喉音 및 牙音 ⁷⁾
開三	iəm	iən				iem
					知組 및 章組 제외	
開四			-			知組 및 章組
合三	am	an		an		全部
						凡韻(唇音)

《廣韻》 咸攝에는 覃韻([ɒm])·談韻([am])·鹽韻([iəm])·添韻([iem])·咸韻([ɐm])·銜韻([am])·嚴韻([iɛm])·凡([iɥɐm])⁸⁾ 등 총 8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中原》에서 상당부분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覃·談·咸·

4) 본문의 각 표에서 《中原》의 재구음은 楊耐思(1981)를 따랐다.

5) 본문의 각 표에서 《圖經》의 재구음은 郭力(1987)을 따랐다.

6) 본문의 각 攝에 출현하는 각 표의 “例”는 자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例字들은 표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따로 적기로 한다.

7) 《通解》에서 咸韻 開口 2等인 “臉”은 예외적으로 覃韻(見母, 上聲, 中聲 ㄴ)이 아닌 鹽韻(見母, 上聲, 中聲 ㄴ)에 소속시키고, “今俗音 련”이라 기록하고 있는 반면, 《中原》에서는 監咸韻([-m])의 來母 글자들과 함께 배열시키고 있다.

8) 본문에서 《廣韻》 각 韻部의 재구음은 郭錫良(1986)을 따랐다.

銜 등 4개 韻部는 監咸韻([am, iam])에, 鹽·添·嚴 등 3개 韻部는 廉絳韻([iem])에, 그리고 凡韻은 寒山韻([-an])으로 각각 귀속되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咸韻(中聲 ㄷ, ㅌ)과 鹽韻(中聲 ㄷ)에 기록하고 있으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시기 [-m]을 갖는 운모의 글자들은 《通解》에서 咸韻·鹽韻·侵韻 등 3개 韻部에 분류하고 있으며, 正音 鐘聲에서는 모두 “-ㄹ”([-m])을 보유하고 있으나, 俗音 및 今俗音 기록을 통해 실제 어음에서는 이미 [-n]화 현상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廣韻》咸攝의 陽聲韻尾 [-m]을 갖는 글자들은 《中原》에 이르러서도 “凡犯帆范(並)泛(滂)” 등 寒山韻([-an])에 귀속된 撮口 3等 凡韻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韻部들에서 여전히 [-m]을 보유하고 있어, 《中原》 시기에 [-m]→[-n] 현상은 단지 변화의 초기 과정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力은 일찍이 《西儒耳目資》(1626년)에서 韻尾를 [-m]으로 갖는 韻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늦어도 16세기에는 北方方言에서 [-m] 韻尾가 소실되었음을 주장한바 있다.⁹⁾ 이는 남방에서보다 북방에서의 [-m] 韻尾 소실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崔世珍은 《通解》『凡例』第24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諸韻終聲ㄴㅌㅇ之呼初不相混，而直以侵覃鹽合口終聲，漢俗皆呼爲ㄴ，故眞與侵、刪與覃、先與鹽之音多相混矣。(여러 韻에서 終聲 ㄴ·ㄹ·ㅇ의 발음은 애당초 서로 섞이지 않아서, 줄곧 “侵·覃·鹽”이 -ㄹ 終聲으로 발음되었으나, 중국의 세간에서는 모두 ㄴ으로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眞”(-ㄴ)과 “侵”(-ㄹ), “刪”(-ㄴ)과 “覃”(-ㄹ) 그리고 “先”(-ㄴ)과 “鹽”(-ㄹ) 등의 어음이 대부분 서로 뒤섞이었다.)

이를 통해 崔世珍이 청취한 당시 중국어음에의 [-m]→[-n] 양상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通解》보다 60여년 이전에 편찬된 《洪武正韻譯訓》(1455년, 이하 《譯訓》)으로 약칭)의 俗音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9) 王力, 《漢語史稿》(1988, 174쪽): “在北方話裏, -m的全部消失, 不能晚於十六世紀, 因爲十七世紀初葉(1626)的《西儒耳目資》裏已經不再有-m尾的韻了。” 한편, 楊耐思(1981)에서는 [-m]의 소실시기를 16세기 초엽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므로¹⁰⁾ 북방 중국어에서 [-m]→[-n]의 정착 시기는 적어도 《譯訓》 시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通解》에서는 咸韻 開口 2等 “詰站(知)湛賺(澄)斬蘸(莊)讒饑(崇)杉摻(生)” 및 銜韻의 開口 2等 “攙儼(初)衫芟(生)” 등 知組와 莊組를 照組로 통합함과 동시에, 기타 開口 1等과 함께 中聲을 /ㅈ/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緘減(見)咸函(匣)黠(影)”(咸韻 開口 2等); “監鑑(見)嵌(溪)檻檻(匣)岳巖(疑)”(銜韻 開口 2等) 등 대부분의 喉音과 牙音에서는 介音 [i]가 추가되어(中聲 ㅈ) 3等に 합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들 開口 2等 喉音과 牙音은 《中原》에서 監咸韻([iam])에 귀속되었고, 《通解》에서도 覃韻(中聲 ㅈ)에 분류하고 있지만, 見母의 “監”자 아래에는 “今俗音 ㄱ, 下至去聲同.”이라 하여, 《中原》에서 《通解》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韻尾뿐만 아니라, 介音 및 주요모음에서도 단계별로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¹¹⁾ 즉, 開口 2等 喉音과 牙音은 《中原》 시기에 介音 [i]가 추가되고, 《通解》시기에는 韻尾의 변화([-m] → [-n])를 포함하여, 介音의 추가로 인한 주요모음의 변화([a] → [ɛ])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²⁾

셋째, 開口 3等과 開口 4等の 합류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합류현상은 이미 《中原》에서 관찰되고 있지만 “滄俺” 등 일부 影母 3等 글자들을 여전히 廉纖韻([iɛm])이 아닌 監咸韻([iam])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通解》에서는 3等과 4等 모두를 鹽韻(中聲 /ㅈ/)에 귀속시키고 있어,¹³⁾ 합류현상이 더욱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圖經》에서 보이는 중고시기 開口 3等 鹽韻의 “沾霑(知)覬詔(徹)” 등 知組와 “詹占(章)檐檐(昌)蟾瞻(禪)染菴(日)” 등 章組 글자들의 介音 [i] 탈락현상

10) 《譯訓》侵韻 아래 注: “俗音 ㄱ, 韻中諸字終聲並同.” 이와 같은 주석은 중고시기 [-m]을 운미로 하는 覃韻 및 鹽韻 아래서도 관찰된다.

11) 비록 《通解》에서는 覃韻(中聲 ㅈ)의 見母를 제외한 기타 喉音 및 牙音에서는 “今俗音 ㄱ”의 기록이 없어, 《通解》만으로 어음변화의 진척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보다 앞서 崔世珍에 의해 지어진《翻譯》의 左側音과 右側音에서는 이들 대부분을 모두 “ㄱ”으로 기록하고 있어, 《通解》시기에 이미 《圖經》에 근접한 어음변화 현상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한글 注音 “ㅈ”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어음 [iɛ]에 대해서는 이미 朱星一(2011, 360~361쪽)에서 언급한 바 있다.

13) 《中原》의 경우 鹽韻 影母 일부 “滄俺” 글자들은 여전히 監咸韻([iam])에 귀속시키고 있다.

은 《中原》뿐 아니라 《通解》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어, 知組와 章組가 합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舌尖后音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咸攝의 8개 韻母는《通解》시기에 [an], [ien] 2개의 韻母로 귀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深攝

廣韻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三	im	-	in	iəm	in	莊組 제외
	im		in	əm	ən	莊組

《廣韻》深攝은 侵韻([iəm]) 1개의 韻部로만 구성되어 있다. 侵韻은 《中原》에서 모두 侵尋韻([əm, iəm])으로 분류되었는데, 韻尾는 모두 여전히 [-m]을 보유하고 있으나, 聲母의 차이에 따라 두 종류로 재구되고 있다. 즉, 중고시기 侵韻 開口 3等の 莊組(照二) 글자들은 介音이 소실된 [əm]으로 재구되며, 知組와 章組를 포함한 기타 성조의 글자들은 介音을 보유한 [iəm]으로 재구되고 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모두 侵韻(中聲 一, 丨)에 기록하고 있으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 어음에서 韻尾 [-m]은 모두 [-n]으로 변화하였다. 侵韻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今俗皆呼爲ㄴ, 而間有用口呼之者亦多. 故不著俗音如通攷也, 後倣此.(今俗音에서는 모두 -ㄴ으로 읽지만 간혹 -ㄹ로 읽는 것도 많다. 따라서 俗音을 통고처럼 적지는 않는다. 이하도 이에 준한다.)

이를 통해 당시 실제 어음에서의 구체적인 韻尾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비록 崔世珍은 “間有用口呼之者亦多”라 하여 여전히 [-m] 韻尾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崔世珍의 《通解》 및 《翻譯老乞大·朴通事》(이하 《翻譯》

으로 약칭)의 注音 기록에서는 “甚”과 “怎” 등 극소수의 글자들에서만 [-m] 韻尾의 존재가 관찰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通解》는 물론이요, 《通解》보다 이른 시기에 지어진 중국어 회화교본인 《翻譯》의 左側音과 右側音에서도 기본적으로 韻尾 [-m]을 모두 [-n]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甚”(《通解》侵韻, 禪母, 中聲 1)과 “怎”(《通解》侵韻, 精母, 中聲 一) 두 글자에 대해서만큼은 左側音과 右側音 終聲에 예외 없이 [-m]으로 기록되고 있다.¹⁴⁾ 이에 대하여 金基石(1997, 134쪽)은 康寔鎭(1985, 123쪽)의 주장¹⁵⁾을 토대로, 당시에 “甚”과 “怎” 두 글자 역시 같은 음운 변화가 있었으나, 이 두 글자들이 대부분 “麼”와 결합하여 출현하였기 때문에, 당시 朝鮮의 譯音 기록자들이 “麼”의 雙脣音 聲母([m-])에 의한 역행 동화 현상으로 앞 글자인 “甚”과 “怎”의 韻尾가 [-m]으로 읽히는 연음 현상을 해당 글자 자체의 어음으로 오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 필자 역시 [-m] 韻尾가 동일한 어음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음변화의 계통을 벗어난 개별글자들에 한정되어 기록되고 있는 점과 이들이 설혹 “麼”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甚麼” 혹은 “怎麼”에서 축약된 발음의 존재가 여전히 앞 글자의 終聲에 잔영으로 남을 수 있어, 당시의 어음 기록자들이 이를 개별 글자의 발음으로 오기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通解》시기에 [-m]→[-n]의 변화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簪簪(莊) 參識(初) 岑涇(崇) 森霖(山)” 등 正齒音 莊組 3等 글자들은 《通解》에서 照組(中聲 一)에 기록하고 있으며, “斟針(章) 甚(船) 枕甚(禪) 深審(書) 任壬(日)” 등 正齒音 章組 3等과 “砧椹(知) 琛榭(徹) 沉湛(澄)” 등 舌上音 知組를 비롯한 기타 3等 글자들¹⁶⁾은 모두 照組(中聲 1)에 통합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通解》시기 侵韻 글자들 중 舌尖後音의 생성과정과 관계가 밀접한 知·章·莊 3組의 글자들 중 莊組에서의 음모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翻譯》에서 《通攷》방식을 따르고 있는 左側音에서는 “ㄴ”([in])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國俗撰字 방식을 따르고 있는 右側音에서는 “ㄴ”([ʌn])으로 기록되

14) 《翻譯》에서 “甚”은 총 123회, “怎”은 총 76회 출현하고 있다.(遠藤光曉(1990) 93쪽, 185쪽 참조)

15) 康寔鎭은 “甚”과 “怎”의 음미를 -m으로 기록한 것은 어음지식의 한계로 연음에 의한 발음을 낱자의 발음으로 오인한 결과로 보았다.

16) 齒頭音; 喉牙音; 來母 등 글자들도 “中聲 1” 아래 수록되어 있다.

고 있다. 申叔舟가 《通攷》『凡例』第7條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양국 간의 음계차이로 인해 중국어음을 訓民正音으로 注音할 때 사용한 音素 “-”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어음은 “-”와 “-”의 중간 발음이라 하였으니,¹⁷⁾ 左側音과 右側音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中原》과 《圖經》의 재구음과 해당글자들의 현대중국어 발음을 고려할 때, 《通解》侵韻에 사용된 中聲 “-”는 [ə]에 대한 轉寫로 보인다.

셋째, 《中原》과 비교할 때, 韻尾뿐 아니라 주요모음에서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莊組를 제외한 기타 글자들에서는 주요모음 [ə]가 탈락하면서 고모음화가 진행되면서 《圖經》 시기의 발음과 일치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深攝의 韻母 [iēm]은 《通解》 시기에 [in], [ən] 2개의 韻母로 나뉘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山攝

廣韻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an	(an)	-	an	an	喉音 및 牙音 제외
	ən	an				喉音 및 牙音
開二	an	(an)	iən	ian	ian	喉音 및 牙音 제외
	ian	(ian)				iən
開三	iən	(iən)	-	uən ¹⁸⁾	an	知組 및 章組
開四					ian	全部
合一	uən	ən (uən)	-	uan	an	脣音
合二	uan	(uan)			uan	脣音 제외
合三	uan	an (uan)	-	an	an	全部
					uan	微母 제외 輕脣音
合四	iuiən	(iuiən)	-	iuən	yan	微母
					uan	精組, 喉音, 牙音
					yan	知組 및 章組
					yan	全部

17) “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若用於中國漢音則必變而通之，乃得無碍。……如一則一之間……”

18) 楊耐思(1981, 40쪽)는 《中原》의 桓歡韻 소속 글자들의 어음에 대하여 《蒙古字韻》의

《廣韻》山攝은 元韻([iɛn], [iwen])·寒韻([an])·桓韻([uan])·刪韻([an], [wan])·山韻([æn], [wæn])·先韻([ien], [iwen])·仙韻([iɛn], [iwen]) 등 총 7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中原》 시기에 이르러 寒韻·刪韻·山韻 그리고 輕唇音 合口 3等 元韻¹⁹⁾ 등 韻部는 寒山韻([an], [ian], [uan])에, 先韻과 仙韻을 비롯하여 喉音 및 牙音 계열의 合口 3等 元韻 등 韻部는 先天韻([iɛn], [iuɛn])에, 桓韻은 桓歡韻([uan])에 각각 귀속되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寒韻(中聲 ㄱ, ㄷ)과 刪韻(中聲 ㄷ, ㄴ, ㄹ) 그리고 先韻(中聲 ㄷ, ㄹ)에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의 山韻 및 刪韻의 開口 2等 “間簡(見)慳(溪)眼(疑)閑閑(匣)殷(影)”(山韻) 및 “奸諫(見)顏鴈(疑)晏鸚(影)”(刪韻) 등 牙音 및 喉音 계열의 글자들은 《中原》 시기에 이미 開口 3等に 합류하였으며, 《通解》에서도 刪韻(中聲 ㄷ)에 수록하여 구개음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今俗音 기록에서는 이들 中聲을 모두 “ㄷ”로 기록하고 있어, 주요모음에서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둘째, 《廣韻》仙韻 開口 3等 중 “展鱸(知)蕝(徹)纏塵(澄)” 등 知組 글자들과 “戰氈(章)闡禪(昌)扇煽(書)禪善(禪)” 등 章組 글자들은 《圖經》에서 介音 [i] 탈락 현상을 보이면서 舌尖後音化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通解》에서는 이들을 先韻(中聲 ㄷ)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俗音 기록이나 今俗音 기록에서 中聲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는 《中原》에 이어 《通解》 시기까지도 知組와 章組 글자들이 介音 [i]를 보유하고 있어 아직 舌尖後音化 현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廣韻》桓韻 合口 1等 중 “般搬半(幫)潘泮判(滂)槃磐伴(並)瞞謾滿(明)” 등 唇音 글자들은 《通解》寒韻(中聲 ㄷ)에 수록하고 있는데, 俗音에서는 이들을 각각 “번(幫)”; “편(滂)”; “뵤(並)”; “뵤(明)”으로 기록하고 있어²⁰⁾ 실제 어음에서

어음을 근거로 陸志韋가 《釋中原音韻》에서 재구한 [uan]을 [on]으로 수정 재구하고 있으나, 《通解》는 해당 글자들을 수록하고 있는 寒韻(中聲 ㄷ) 唇音 글자들 아래에서 “蒙韻”의 재구음을 모두 “뵤”으로 기록하고 있어, 본문에서도 [uan]을 따른다.

19) 《中原》의 寒山韻으로 발전한 《廣韻》元韻은 주로 輕唇音 合口 3等 글자들이며,

20) 《通解》寒韻(中聲 ㄷ) 幫母의 첫글자인 “般”자 아래 “俗音번, 並下至去聲同.”라는 음

介音 [u] 탈락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通解》([ən])의 脣音이 《中原》([uən])으로부터 《圖經》([an])에 이르기까지의 교량적 어 음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廣韻》元韻 合口 3等 중 “蕃反(非)番飜(敷)煩繁(奉)” 등 微母를 제외한 輕脣音은 《中原》에 이어 《通解》에서도 介音 [u] 탈락현상이 관찰된다. 다만, 輕脣音 가운데 “萬晚挽蔓曼” 등 微母에서만은 《中原》과 달리 介音 [u]가 다시 추가되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²¹⁾ 이는 半母音인 微母가 零聲母化 되면서 나타나는 圓脣母音化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注音의 형태로 볼 때 비록 《通解》에서 微母(“ㄹ”)를 독립시켜 “환”으로 기록하고는 있지만, 《翻譯》의 『凡例』에서 “微母作聲近似於喻母”라 하여 微母의 零聲母化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國俗撰字 방식을 따르고 있는 《翻譯》의 右側音에서는 “ㄹ”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완”([uan])으로 기록하고 있다.²²⁾ 이렇듯 《通解》 시기에 微母가 零聲母化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通解》의 俗音 혹은 今俗音 기록에서 微母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中原》과 비교할 때 介音 [u]의 추가는 微母의 변화가 韻母에 끼친 영향임은 분명하다.

다섯째, 《廣韻》仙韻 合口 3等 중 “轉囀(知)傳篆(澄)” 등 知組와 “專磚(章)穿喘(昌)船(船)遄筵(禪)軟輓(日)” 등 章組 글자들은 《中原》에 이어 《通解》에서도 先韻(中聲 ㅈ)에 수록하고 있으며, 俗音이나 今俗音 기록이 없다. 이는 《通解》 시기까지도 知組와 章組에서 《圖經》에서와 같은 介音 [i] 탈락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對譯音 中聲 /ㄷ/와 /ㅈ/가 실제로 반영하는 어음은 각각 [iɛ]와 [iuɛ]

注가 보이며, 기타 脣音 자모 아래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俗音 기록이 관찰되고 있다.

21)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通解》刪韻(中聲 ㅈ)에서는 輕脣音 중 微母 글자들에 대해서, 비록 微母에 대한 한글 注音 ‘ㄹ’([w])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俗音 및 今俗音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翻譯》의 경우 《通攷》를 따르고 있는 左側音에서도 《通解》와 마찬가지로 “환”([wuan])이라 기록하고 있다.

22) 《通解》陽聲韻 기록에서 微母를 기록하고 있는 韻은 文韻(中聲 ㅈ); 刪韻(中聲 ㅈ); 陽韻(中聲 ㅈ)이며, 《翻譯》의 右側音에서 微母를 零聲母로 기록하고 있는 刪韻 및 陽韻에 속한 글자들이며, 文韻에 속한 글자들은 그대로 微母(“ㄹ”)를 유지시키고 있다.

로 결론지은 바 있으므로,²³⁾ 재삼의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일곱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山攝의 12개 韻母는 《通解》시기에 [ən], [an], [ien], [uən], [uan], [[iuən] 등 6개의 韻母로 귀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臻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in	(in)	-	ən	ən	全部
開三		(in)		ien		in
	合一	un			(un)	
合三				in	uən	喉音 및 牙音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iuən			yn

《廣韻》 臻攝은 眞韻([iĕn], [iŵĕn])·諄韻([iuĕn])·臻韻([iĕn])·文韻([iuən])·欣韻([iĕn])·魂韻([uən])·痕韻([ən]) 등 총 7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韻部는 《中原》 시기에 이르러 모두 眞文韻([ən], [uən], [ien], [iuən])에 귀속되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眞韻(中聲 丨)과 文韻(中聲 一, 丁, 卍)에 수록하고 있는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 眞韻 및 臻韻 開口 3等 중 “臻(莊) 齏(初) 莘(山)” 등 莊組 글자들은 《通解》에서 모두 文韻(中聲 一)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莊組의 介音 [i] 탈락현상은 《中原》에서도 이미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知組와 章組 3等韻에서는 《通解》 시기까지 여전히 介音 [i]를 보유하고 있으며, 《圖經》에 이르러서야 莊組와 합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廣韻》 魂韻 合口 1等 중 “奔(幫) 歎(滂) 盆(並) 門(明)” 등 重脣

23) 朱星一(2011, 360~361쪽)에서 注音 /π/는 또 다른 注音 /ɣ/([iu])와의 구별을 위해 [iu]로 재구하였다.

홉 글자들과 文韻 合口 3等 중 “分粉(非)紛芬(敷)汾墳(奉)文聞(微)” 등 輕脣音 글자들은 《中原》에서는 모두 合口音으로 읽히고 있지만, 《通解》(文韻, 中聲 丁)의 俗音 기록에서는 모두 介音 [u]가 탈락한 “ㄴ”으로 기록하고 있다. 《通解》에서의 이러한 변화 현상은 대체로 《圖經》에서와 일치하고 있지만, 《圖經》에서 輕脣音 微母 글자들이 合口音으로 읽히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韻母의 注音만을 놓고 볼 때, 《通解》와 《圖經》의 文韻 合口 3等 글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차이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聲母를 동반한 음절 전체의 注音, 즉 《通解》의 注音에서 微母를 전사하고 있는 “ㄹ”([w])를 함께 고려한다면 양자의 현실적인 차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崔世珍이 《翻譯》의 右側音에서 刪韻 및 陽韻의 微母를 零聲母인 “ㅇ”으로 기록하면서도 文韻의 微母에서만은 “ㄹ”([w])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文韻의 微母 글자들에서 일어난 中聲의 변화를 고려할 때, 半母音 “ㄹ”([w])의 모음적 자질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확한 注音이 곤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文韻 合口 3等 중 輕脣音에서 일어난 中聲의 변화에서 微母만큼은 零聲母化하고 있는 聲母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通解》 注音에서 “ㄴ”과 “ㄹ”은 《中原》에서 각각 [iən]과 [uən]에 대응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어음체계에서 [iən]은 “ㄴ”으로, [uən]은 “ㄹ”으로 注音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이들이 《圖經》에서는 각각 [in]과 [un]으로 대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通解》 注音에서 “ㄴ”과 “ㄹ”은 《中原》과는 다른 [in]과 [un]의 轉寫로 판단된다.

넷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 臻攝의 8개 韻母는 《通解》 시기에 [ən], [in], [un], [iən] 등 4개의 운모로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宕攝 및 江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aŋ	(aŋ)	-	aŋ	aŋ	全部
開二		uaŋ		uaŋ	uaŋ	脣音; 喉音 및 牙音 개별자 知組 및 莊組
開三	iaŋ	(iaŋ)		iaŋ ²⁴⁾	iaŋ	喉音 및 牙音 대부분 正齒音 제외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합一	aŋ	uaŋ		uaŋ	aŋ	知組 및 章組
					uaŋ	莊組 喉音 및 牙音(見母 제외) 見母 喉音 및 牙音
합三	aŋ	(aŋ)		aŋ	aŋ	輕唇音(微母 제외)
					uaŋ	微母

《廣韻》宕攝은 陽韻([iaŋ], [iwaŋ])·唐韻([aŋ], [uaŋ]) 총 2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으며, 江攝은 江韻([ɔŋ]) 1개의 韻部로 구성되어 있다. 宕攝과 江攝은 조기에 합류되었으며,²⁵⁾ 이들 韻部는 《中原》 시기에 이르러 모두 江陽韻([aŋ], [uaŋ], [iaŋ])에 귀속되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陽韻(中聲 卜, ㄱ, ㄴ)에 수록하고 있는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江韻 開口 2等에서 “邦梆(幫)胖(滂)棒蚌(並)彫眇(明)” 등 唇音을 비롯하여 일부 喉音 및 牙音(“扛扛(見)缸(匣)”)은 《中原》 시기에 開口 1等과 합류하였으며, “江講(見)腔(溪)降項(匣)” 등 대부분의 喉音 및 牙音은 開口 3等과 합류하였는데, 《通解》에서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椿(知)幢撞(澄)” 등 知組 2等 글자들은 《中原》 시기에 “窓窓(初)雙瀧(山)” 등 莊組와 합류하였으며, 《通解》에서는 이들을 모두 陽韻(中聲 卜)에 배열하고 俗音을 “냥”으로 기록하여 《中原》과 같은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通解》에서 陽韻 開口 3等 중 “將長(知)悵暢(徹)腸場(澄)” 등 知組를 비

24) 楊耐思(1981)에서는 知組와 章組 開口 3等 글자들의 운모를 [aŋ]으로 재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知組 및 章組는 [aŋ]((中原))→[iaŋ]((通解))→[aŋ]((圖經))라는 다소 합리에 맞지 않는 舌尖後音化 과정이 연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姜信沆(1980, 101쪽) 및 向熹(1993, 307~309쪽)를 따라 知組와 章組 계열의 韻母를 [iaŋ]으로 재구한다.

25) 王力(1988, 242~243쪽)에 따르면, 江攝은 조기에 宕攝에 합류되었으며, 《四聲等子》(南宋以前)에서도 이들을 한 개의 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江攝을 구성하고 있는 江韻은 본래 開口 2等이므로 宕攝(開口 1等; 開口 3等; 合口 1等; 合口 3等)과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近代漢語에서 이들의 발전 과정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못하여 “章璋(章)昌菴(昌)常嘗(禪)商賞(書)” 등 章組 글자들은 陽韻(中聲 ㄱ) 아래 수록하고 있으며, 俗音 및 今俗音 기록이 없어 현실음에서도 正音を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翻譯》의 左側音과 右側音에서도 《通解》의 正音과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어 正音 자체가 현실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陽韻 開口 3等 중 “莊裝(莊)創瘡(初)狀牀(崇)霜爽(山)” 등 莊組 글자들은 陽韻(中聲 ㄱ)에 배열하고, 俗音에서는 일률적으로 “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知章莊 3組의 통합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 陽韻 開口 3等 莊組 글자들은 《中原》 시기에 合口音化 하였으며,²⁶⁾ 《通解》 시기로 이어져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대 중국어음에 근접한 舌尖後音化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知組 및 章組는 《通解》 시기까지 여전히 開口 3等を 유지하다가 《圖經》에 이르러서야 介音 [i]의 탈락과 함께 舌尖後音化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고시기 陽韻 合口 3等 중 “方坊(非)芳妨(敷)房防(奉)亡忘(微)” 등 輕脣音 글자들은 《中原》 시기에 開口 1等に 합류하여 《通解》 시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俗音 혹은 今俗音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翻譯》의 注音에서는 微母와 기타 輕脣音 간의 기록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左側音에서는 微母 글자들을 “황”([waŋ])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右側音에서는 微母를 零聲母 표지인 “ㅇ”로 기록하여 “왕”([uaŋ])으로 기록하고 있다. 韻母의 注音만을 볼 때, 注音 양자 간에 合口와 開口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음절 전체 注音에서는 半母音이 가진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 발음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通解》에서 微母 글자들에 대하여 俗音 혹은 今俗音 기록을 두지 않은 것도 이러한 微母가 가지는 모음적 자질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 宕攝과 江攝의 5개 韻母는 《通解》시기에 [aŋ], [iaŋ], [uaŋ] 등 3개의 운모로 귀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向熹(1993, 308쪽)에서는 《中原》의 莊組 글자들을 [aŋ]으로 재구하고 있다.

6. 梗攝 및 曾攝

廣韻				中原	圖經	例		
	等呼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əŋ	əŋ	全部(“肯”등 개별자 제외)		
開二	iŋ	iŋ	-	uəŋ; uŋ		əŋ	脣音	
				əŋ			莊組, 來母	
開三	iŋ	(iŋ)		iəŋ	iŋ	iŋ	牙音(見母 및 溪母)	
							喉音 및 牙音(影母 및 疑母)	
							知組 및 章組 제외	
開四	iŋ	(iŋ)			əŋ	iŋ	iŋ	知組 및 章組
								全部
合一	uiŋ	uŋ			uəŋ; uŋ	uŋ	uŋ	喉音 및 牙音
合二								
合三	iɛiŋ	iɛiŋ		iɛiŋ; iɛiŋ	yŋ	yŋ	본문참조	
합四			iŋ					iŋ

《廣韻》梗攝은 庚韻([ɛŋ], [iɛŋ], [wɛŋ], [iɛwɛŋ])·耕韻([æŋ], [wæŋ])·淸韻([iɛŋ], [iɛwɛŋ])·靑韻([iɛŋ], [iɛwɛŋ]) 등 총 4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으며, 曾攝은 蒸韻([iəŋ])과 登韻([əŋ], [uəŋ]) 2개의 韻部로 구성되어 있다. 宕攝과 江攝은 초기 합류와 마찬가지로 梗攝과 曾攝 역시 초기에 합류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 韻部는 《中原》 시기에 이르러 모두 庚靑韻([əŋ], [iəŋ], [uəŋ], [iuəŋ])에 귀속되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庚韻(中聲 1, ㄱ, ㄱ, ㄱ, ㄱ)에 수록하고 있는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登韻 開口 1等 “崩(幫)鵬(並)”, 庚韻 開口 2等 “烹(滂)孟盲(明)”, 耕韻 開口 2等 “縑(幫)棚(並)萌(明)” 등 脣音 글자들은 《中原》에서 庚靑韻([uəŋ])과 東鍾韻([uŋ])에 重出되고 있다. 하지만, 《通解》의 俗音에서는 이들을 모두 “응”([iŋ])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해당 어음들이 《圖經》과 같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표에서는 注音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중고시기 登韻 開口 1等 중 “肯(溪)”([əŋ])자의 경우, 《中原》에서는 이를 眞文韻([ən])에 귀속시켜 韻尾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通解》에서는 이를 비록 庚韻(中聲 ㄱ)에 수록하고 있지만,

“俗音근, 蒙韻쿵”이라 기록하고 있어,²⁷⁾ 현실음 기록인 俗音에서는 《中原》과 같은 韻尾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韻尾의 변화는 《圖經》([ən])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通解》보다 늦은 시기에 편찬된 《西儒耳目資》(1626년)에서는 여전히 [əŋ]으로 기록하고 있어, 《通解》가 북방계 어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셋째, 庚韻 開口 2等 “庚梗(見)坑(溪)行杏(匣)” 등을 비롯하여 耕韻 開口 2等 “耕(見)硜(溪)櫻鸚(影)硬(疑)幸倖(匣)” 등 喉音 및 牙音은 《中原》에서 開口 3等에 합류되어 모두 [iəŋ]으로 재구되고 있으나, 《通解》에서는 이들 중 “庚梗(見)坑(溪)”와 “耕(見)硜(溪)” 등 見母와 溪母 글자들은 庚韻(中聲 一)에 수록하고 見母 아래는 “俗音공又音강”, 溪母 아래는 “俗音쿵”이라고 俗音을 기록하고 있으며,²⁸⁾ “行杏(匣)櫻鸚(影)硬(疑)幸倖(匣)” 등 喉音을 비롯한 影母와 疑母 글자들은 庚韻(中聲 一)에 수록하고 俗音 혹은 今俗音 기록을 따로 두지 않고 正音 자체를 현실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어음을 《圖經》과 비교하면 牙音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俗音에서 “ㄴ”([əŋ])과 “ㄹ”([iŋ])이 혼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通解》 시기의 牙音 역시 《圖經》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넷째, 庚韻을 비롯하여 淸韻과 蒸韻의 開口 3等은 《中原》 시기에 淸韻 開口 4等과 통합되어 《通解》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중 淸韻의 “貞禎(知)騁(徹)鄭程(澄)正整(章)成城(禪)聲聖(書)” 및 蒸韻의 “徵(知)澄懲(澄)證丞(章)稱秤(昌)乘繩(船)升勝(書)承丞(禪)仍(日)” 등 知組 및 章組 글자들은 《中原》에 이어 《通解》 시기까지 여전히 介音 [i]를 보유하고 있다가 《圖經》에 이르러서야 介音 [i]가 탈락하면서 聲母의 舌尖後音化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登韻 合口 1等 “肱(見)蕘(曉)弘(匣)” 및 庚韻 合口 2等 “轟(曉)宏紘(匣)泓(影)” 등 喉音 및 牙音은 《中原》에서 庚靑韻([uəŋ])과 東鍾韻([uŋ])에 重出되고 있다. 하지만, 《通解》의 俗音에서는 이들을 모두 “웅”([uŋ])으로 기록하여, 《通解》 시기 해당 어음들이 《圖經》과 같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庚韻 合口 3等 “罔(見)兄(曉)榮永(喻)”, 淸韻 合口 3等 “蠶(溪)瓊瑩

27) 《翻譯》 左側音과 右側音에서도 모두 《通解》의 俗音인 “ㄴ”으로 기록하고 있다.

28) 《翻譯》 左側音과 右側音에서는 이들을 모두 “ㄹ”으로 기록하고 있다.

(群)洞夔(曉)” 등의 喉音 및 牙音은 《中原》 시기에 대체로 靑韻 合口 4等 “扃坳(見)迥(匣)塋(影)”([iuəŋ])에 합류되었는데,²⁹⁾ 이들 중 “塋詠” 등 소수 글자들은 東鍾韻([iuŋ])에도 중출하고 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모두 庚韻(中聲 ㄱ)에 배열하고, 각 자모의 첫 글자 아래 俗音 혹은 今俗音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음에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扃(見, ㄱ): 俗音 ㄱ, 韻會同, 下至上聲同(“坳網罔瓊炅吞炅”포함)
- 傾(溪, ㄱ): 俗音 ㄱ, 下至上聲同(“頃嶠嶺尙綰綱”포함)
- 瓊(群, ㄱ): 俗音 ㄱ, 蒙韻 ㄱ, 今俗音 ㄱ 並下同(“瑠擘瑩瑩”포함)
- 塋(影, ㄱ): 俗音 韻會 並 ㄱ, 蒙韻 ㄱ, 中原音韻 用
- 兄(曉, ㄱ): 蒙韻 ㄱ, 今俗音 ㄱ 上去聲同(“洞夔”포함)
- 迥(匣, ㄱ): 蒙韻 ㄱ, 今俗音 ㄱ 並下同(“洞炯”포함)
- 營(喻, ㄱ): 俗音 ㄱ, 又 音 ㄱ 下同(“塋塋榮榮榮螢榮蠶永詠咏榮營”포함)

특히, 위의 喻母(ㄱ) 소속 글자들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音注가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 營字: 蒙韻 ㄱ 下至 ‘塋’ 字同(“塋塋”포함)
- 榮字: 韻會 蒙韻 ㄱ
- 螢字: 蒙韻 ㄱ, 韻會 ㄱ, 並 下至 ‘營’ 字同, 集韻 ㄱ ㄱ 二音(“榮螢”포함)
- 蠶字: 今俗 或 ㄱ
- 永字: 今俗 音 ㄱ, 集韻 ㄱ ㄱ 二音
- 詠字: 蒙韻 ㄱ, 今俗 音 ㄱ, 並 下至上 去 聲 同(“蠶永詠咏榮營”포함)
- 咏字: 中原音韻 用
- 營字: 中原音韻 與 營 同

위와 같이 《通解》의 俗音 및 今俗音 기록은 대체로 《中原》 및 《圖經》의 재구음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塋詠營” 3字 아래 달린 音注 “中原音韻 用”이다. 이 글자들은 《中原》에서 庚靑韻([iuəŋ]) 혹은 東鍾韻([iuŋ])에 중출하는 글자들이며, 《通解》에서는 이들의 今俗音을 “ㄱ”([iuŋ])³⁰⁾으

29) 合口 3等 중 “傾(靑韻, 溪母)瓊(庚韻, 見母)” 등 소수 글자들은 開口音에 귀속되기도 하였다.

로 기록하고, 《中原》에서의 “用”(東鍾韻, [iuŋ])과 같은 발음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中原》의 庚靑韻의 [iəŋ]이 東鍾韻 [iuŋ]으로 발전해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中原》의 庚靑韻 [iəŋ] 역시 《通解》 시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iŋ]으로 변하여 《圖經》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淸韻 合口 3等 溪母 글자들 중 “頃齏嶺尚” 등은 《中原》에서는 庚靑韻([iəŋ])으로 읽히던 글자들이었지만, 《通解》 시기 현실음에서는 [iŋ]으로 변하여 현대 중국어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 梗攝 및 曾攝의 13개 韻母는 《通解》 시기에 [əŋ], [iŋ], [uŋ], [iuŋ] 등 4개의 韻母로 귀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通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合一	uŋ	(uŋ)	-	uŋ	uŋ	重唇音 제외
			iŋ			重唇音
合三	iuŋ	(iuŋ)	-	iuŋ	yŋ	輕唇音
						知組 및 章組, 牙音
						精組, 來母
						喉音

《廣韻》 通攝은 東韻([uŋ], [iuŋ])·冬韻([uoŋ])·鍾韻([iwoŋ]) 등 총 3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中原》에서 모두 東鍾韻([uŋ], [iuŋ])에 귀속되었다.

《通解》에서는 이들을 東韻(中聲 1, Ⅱ)에 수록하고 있는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시기 東韻 合口 1等 “蓬芘篷(並)蒙濛朦夢(明)” 등 重唇音 계열은 《中原》과 《通解》 正音에서 모두 중고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今俗音

30) 楊耐思(1981)에서는 東鍾韻 合口音을 [iuŋ]로 재구하고 있다. [iuŋ]은 《通解》의 注 音 “용”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본고에서는 한글 注音에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中 聲 “구”(iu)와의 구별을 위해 한글 注音 “용”을 [iuŋ]으로 재구한다.

에서는 “뽕”(並母) 혹은 “명”(明母) 등 운모를 모두 “응”([iŋ])으로 기록하고 있어, 《通解》 시기 현실음에서는 이미 현대 중국어에 근접한 발음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³¹⁾

둘째, 東韻 合口 3等 “風楓(非)豐(敷)馮鳳(奉)” 및 鍾韻 合口 3等 “封葑(非)峯烽(敷)逢摐(奉)” 등 輕唇音 계열은 《中原》 시기에 기타 合口 1等に 합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通解》는 물론 《圖經》에서도 현대 중국어 [aŋ]으로의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편, 위에서 언급하였듯 登韻 開口 1等: 庚韻 開口 2等; “烹(滂)孟盲(明); 耕韻 開口 2等 “縹迳(幫)棚(並)萌(明)” 등 唇音 글자들이 今俗音이 아닌 俗音에서 이미 “응”([iŋ]) 즉, 현대 중국어 [aŋ]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안할 때, 通攝에서의 合口 1等 唇音 開口音化 현상은 상대적으로 梗攝 및 曾攝의 변화 이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東韻 合口 3等 “中忠(知)虫仲(澄)終衆(章)充銃(昌)戎絨(日)”, 鍾韻 合口 3等 “冢(知)寵(徹)重(澄)種踵(章)冲幢(昌)春椿(書)冗茸(日)” 등 知組 및 章組 글자들은 《中原》에서 合口 1等に 합류하였으며, 《通解》의 俗音에서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東韻 合口 3等 “雄熊(匣)融(喻)”, 鍾韻 合口 3等 “凶兇(曉)邕雍(影)容勇用(喻)” 등 喉音 계열의 글자들은 《中原》을 비롯하여 《通解》에서도 중고시기의 어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圖經》에서만 撮口呼로 발전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논의와 같이 《廣韻》 通攝의 4개 韻母는 《通解》시기에 [aŋ], [uŋ], [iŋ] 등 3개 韻母로 귀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通解》에 기록된 陽聲韻의 注音符를 통해,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韻尾를 비

31) 《通解》에서의 발음 변화를 고려할 때, 중고시기 東韻 合口 1等 重唇音에 대한 《圖經》 시기의 어음을 기타 合口 1等과 같은 [uŋ]으로 판단한 郭力(1987)의 재구음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롯한 介音과 주요 모음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中原》과 《圖經》을 잇는 통시적 발전과정으로 분석되었다.

《通解》 시기 陽聲韻의 어음체계와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얻은 《通解》 시기의 陽聲韻 어음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開口呼	齊齒呼	合口呼	撮口呼
an	iɛn	uan	iɥɛn
ən	in	uən	
		un	iɥn
aŋ	iaŋ	uaŋ	
əŋ	iŋ	uŋ	iɥŋ

둘째, 覃韻·談韻·咸韻·銜韻·鹽韻·添韻·嚴韻·凡韻·侵韻 등 중고시기 陽聲韻尾 [-m]을 가진 9개 韻部 중 《中原》에서는 凡韻 合口 3等만이 [-n]으로 변하였으며, 《通解》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韻部들에서도 [-m]→[-n] 현상이 완성되었다.

셋째, 咸攝의 咸韻 및 銜韻, 山攝의 山韻 및 刪韻, 江攝의 江韻, 梗攝의 庚韻 및 耕韻 등 開口 2等 喉音 및 牙音에 介音 [i]가 추가되면서 해당 글자들의 口蓋音化 조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음 변화는 《通解》 시기에 이르러 《中原》 시기보다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深攝의 侵韻, 臻攝의 臻韻, 宕攝의 陽韻 등 開口 3等 莊組 글자들의 介音 [i]의 탈락현상은 이미 《中原》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知組 및 章組 글자들에서는 상호 통합만 관찰될 뿐 《通解》에 이르러서도 介音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通攝 東韻 및 鍾韻 合口 3等の 介音 [i]는 《中原》에서 이미 탈락되어 《通解》로 이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기타 陽聲韻 3等보다 빠르게 莊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開口 1等과 2等, 開口 3等과 4等, 合口 1等과 2等, 合口 3等과 4等 이 각각 통합되는 현상은 관찰할 수 있었으나, 陰聲韻과는 달리 開口音에서 合口音으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³²⁾

마지막으로, 咸攝의 凡韻, 山攝의 桓韻 및 元韻, 臻攝의 魂韻 및 文韻, 宕攝의 陽韻, 通攝의 東韻 등에서 唇音 合口音 글자들이 開口音化하는 현상이 관찰되며, 특히, 이들 중 桓韻, 元韻, 魂韻, 文韻, 東韻 등의 변화는 《中原》 이후 《通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어음 변화현상으로 파악된다.

【參考文獻】

- 《四聲通解》(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洪武正韻譯訓》(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翻譯老乞大(上, 下)》(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翻譯朴通事(上)》(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中原音韻》(影印本), 中國, 中華書局, 1978
 《洪武正韻》(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二三九冊), 臺灣, 商務印書館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膠卷本), 中國, 北京圖書館所藏
 王 力《漢語史稿》(《王力文集》第九卷),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1988
 _____《漢語語音史》(《王力文集》第十卷),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1988
 郭錫良《漢字古音手冊》,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86
 康寔鎮《〈老乞大〉〈朴通事〉研究》, 臺灣, 臺灣學生書局, 1985
 楊耐思《中原音韻音系》, 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_____〈近代漢語-m的轉化〉, 《語言學論叢》第7輯, 商務印書館, 1981年
 郭 力《〈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北京大學碩士論文, 1987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況》,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96
 耿振生《明清等韻學通論》, 中國, 語文出版社, 1992
 向 熹《簡明漢語史》, 中國, 高等教育出版社, 1993
 遠藤光曉《〈翻譯老乞大·朴通事〉漢字注音索引》, 日本, 好文出版, 1990

32) 朱星一(2011, 376쪽)에서는 《通解》 시기 陰聲韻에서 開口音의 合口音化 현상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 何九盈《中國古代語言學史》，中國，廣東教育出版社，2000
- 朱星一《15, 16世紀朝漢對音研究》，中國，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00
- 金基石〈朝鮮韻譯韻書中所反映的近代漢語/-m/尾韻消失的年代〉，《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中國，1997年第4期.
- _____〈朝鮮對音文獻中的微母字〉，《語言研究》，中國，2000年第2期
- _____〈朝鮮韻書與明清音系〉，中國，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2003
- 이강로《사성통해의 음운학적 연구》，박이정，2004
- 姜信沆《四聲通解研究》，新雅社，1980
- 孫建元《〈四聲通解〉今俗音研究》，中國，中華書局，2010
- 胡明揚〈老乞大諺解和朴通事諺解中所見的漢語朝鮮語對音〉；《中國語文》，中國，1963年 第3期
- 曾曉渝〈試論〈西儒耳目資〉的語音基礎及明代官話的標準音〉；《西南師範大學學報》，中國，1991.1
- _____〈西儒耳目資的調值擬測〉；《語言研究》，中國，1992.2
- 김태성〈조선 신숙주의 중국어관〉，《중국어언어연구》제14집，2002
- 朱星一〈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中國文學研究》第42輯，2011
- _____〈申叔舟와 崔世珍의 中國語 正音觀〉；《中國學報》第57輯，2008
- _____〈조선 초기 韓中 譯音 자료에 나타난 중국어음 표기방식 연구〉；《中語中文學》第38輯，2006
- 裴銀漢，〈洪武正韻兩種板本以及四聲通解之分韻體系〉；《중국어언어연구》제20집，2005
- 장위동〈正音俗音皆時論辨〉；《중국어학연구》제19집，2000

【英文提要】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ll agree to the fact that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offers relatively significant and direct tips for constructing the actual transliteration of Chinese language during the Won-myeong(元·明) period than any other references do.

As to the history of developments on Chinese Language, the Modern Chinese plays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Ancient

Chinese and the Present Chinese. It would be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Present Chinese Language without an adequate amount of study on the Modern Chinese. Plus, since the period of the modern Chinese was when the most of basic transliteration in the present Chinese were featured, numerous linguist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i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Joseon Dynasty, written in phonogram, has been contributed greatly to researches on phonetic values of the actual transliteration at that period. And,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is also known to help the academia overcome the limitation of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The researches on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would have relied on the elementary recording system of the transliteration only, if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has not been existed. The only recording systems that the linguists were able to refer to, except the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were Fanqie phonetic notation(反切) from Rhyme book(韻書) and Rhyme chart(韻圖). Amongst all,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unique Woon-seo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most valuable source since it contains personal views of Joseon phonologists toward the Chinese phonemes.

The study is showing the transliteration system of Mandarin and the actual phonetic values in Chinese language, which have been reflected in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good enough by looking at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such as Jeong-eum(正音), Sok-eum(俗音) and Keum-sok-eum(今俗音). Since the propertie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like certain methods and principles on recording the

transliteration, were particularly considered during the research. In other words, because it was not onl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the study ended up with more objective and reasonable conclusions.

【主題語】

近代漢語, 對譯音, 韻母, 陽聲韻, 正音, 俗音, 今俗音

투고일: 2012. 4. 15 / 심사일: 2012. 4. 22~5. 5 / 게재확정일: 2012. 5. 10